



그 사람 지금은

[전라도]

“87년 보안사 ‘5·18’ 말하면 죽이겠다’ 협박”

“1987년 민주당 부의장이 되면서 보안사의 감시와 협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5·18에 대해 말하면 죽이겠다’ ‘배에 철판을 깔았느냐’ ‘칼 맞아 죽고 싶으나’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등 매일 새벽 1~3시 사이에 전화를 걸어 협박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십 명이 괴한이 집에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 집에 없었는데 다행이 큰 불이 되기 전에 아내가 바로 끄었습니다.”

정웅(79) 전 국회의원은 80년대 후반에도 5·18의 후유증을 계속 겪어야 했다. 그 대표적 사건이 1987년 8월 27일 새벽 벌어진 서울 청담동의 집 화재 사건이었다. 당시 경찰은 수사에 나섰으나 범인은 잡을 수 없었다.

“범인을 잡지 못했으나 뻔한 일이 아닙니까. 지프를 타고 온 젊은 늙들들이 제가 몇 시에 들어오고 어디 길로 다니는지 등을 저의 근처 가게 아저씨에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보안사 애들이었겠지요.”

정 전 의원은 이처럼 5·18 이후에도 신군부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 “알고 보면 저희 부부도 우리도 5·18 피해자예요. 5·18로 해임됐지요. 이후 연금과 감사를 받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부터 위로 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하지만 1988년 13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로 출마했다. 평민당 소속이었다. 그는 이 선거에서 12만7천5백79표를 얻어 당선 됐으나 지대석 후보(당시 민정당)가 1만2백11표, 정길성 후보(당시 통일민주당) 1천3백21표, 신김남 후보(당시 한주의통일한국당)가 3백94표를 각각 얻었다.

“광주 시민들이 5·18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 저의 진심을 알았는지 많은 표를 줬습니다. 때문에 전국 최다득표, 최다득표율, 최다표차 당선

“알고 보면 우리 부부도 5·18 피해자”

DJ정부 위로 한마디 없어 아쉬움”

88년 13대 총선서 12만7천여표 획득

최다득표·최다득표율·최다표차 당선

국방참모총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문제가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됐다. 거대여당인 민자당은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과시킬 기세였지만 평민당은 군의 정치개입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고 반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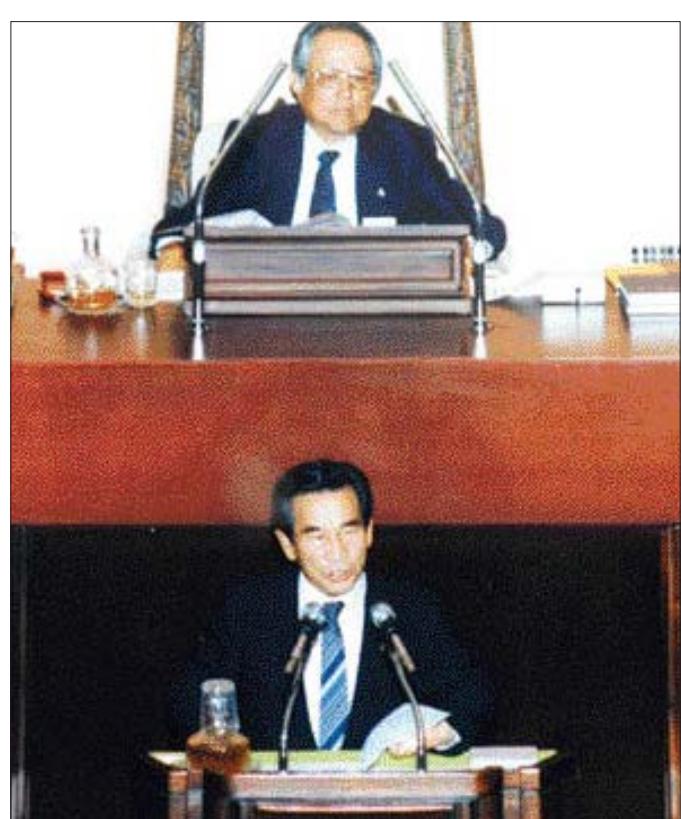
상임위 날치기 통과 등 우여곡절을 겪은 이 법안은 하지만 정 전 의원이 당시 제시한 대안인 합참의장에 군령권을 부여해 합참의장이 군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형 합참의장제로 바뀌어 통과됐다. 정 전 의원은 왕성한 국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1992년 14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평민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만든 민주당이 현역 의원인 그를 탈락시킨 것이다. 당시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은 ▲박종태(광주 서을) ▲정웅(광주 북갑) ▲손주향(전주 완산) ▲이상육(진안·무주·장수) ▲김득수(익산) ▲이재근(나주) ▲이돈만(광양) ▲박형오 의원(신안) 등이었다.

“당시 민주당 조직강화특위는 쉐라톤워커힐 호텔의 별채를 빌려 합숙을 하며 공천작업을 했는데 공천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저의 탈락설이 나돌았어요. 김대중 당시 대표를 면담했는데 공천 탈락을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동교동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았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의리가 없었고요.”

그는 곧바로 민주당을 탈당, 박찬종씨가 주도하는 신정당에 입당했다. “장군 출신으로 전국 구까지 포함 3선 의원을 한 송현섭 장군이 추천을 했어요. 당초에는 출마도 생각했지만 포기했지요.”

정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자 대신 정남인 대군씨가 서울 서초을에 신정당 후보로 출마했다. 현재는 경희대 생물공학과 교수인 대군씨는 당시 미국 코넬대 유전공학박사 출신임을 내세워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 등 첨단과학기술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국회 입성을 노렸었다.

대군씨는 당시 서초을에서 김영삼 민주당 대표의 핵심측근인 김덕룡 후보, ‘양김 뇌진’을 통한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김용갑 전 총무처장관이 무소속으로, 민관변호사로 알려진 민주당의 안동수 후보 등과 붙어 낙선했다. 정 전 의원은



13대 국회에서 정 응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 전라도 역사 이야기

-영산포

조선시대 영산창 설치된 ‘수운 중심지’

영산강 운하가 정치권에 등장, 친반 입장이 팽팽하다. 그간 수운(水運)의 중심지였고, 배길복원운동을 전개해온 영산포(榮山浦)가 주무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권근(1352~1409)이 쓴 양촌집에 ‘영산’이 나온다. 고려 말 왜구약탈과 고도정책 때문에 영산강변에 흑산도인이 이거해 영산현이 설치되고, 1363년 군이 됐다. 조선시대 조운창인 영산창(榮山倉)이 설치되어 8백석적 배 53척이 배치돼 인근 20여고을 세곡 8만여 섬을 운송했다.

이하곤(1677~1724)은 “영산강은 서쪽으로 바닷물이 드나드는데 범선들이 모여 있어 서울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이지현(1840~1898)은 “제민창 서쪽에 이르니 강에 가득 조선(漕船)이 들어차 정관이다”고 했다.

19세기 영산포 마을은 산자락의 남사면에 있었다. 강북 쪽은 영산현 터인 내영산, 영산창터의 택촌, 제민창지 제첨, 동구나루 세월, 토계촌이다. 강남쪽은 창고 마을 주면리와 원집·주막거리인 흥해·교항촌이 강변에 있었고, 노봉산(55m) 남사면에 골무실과 가마터, 부춘과 반송이 분포했다.

목포 개항과 함께 일본인들이 영산포 주변 황무지를 주목, 이후해 들어온다. 처음 정착한 곳은 노봉산 북사면 서원골 아래 저습지로 흥수피해가 찾았으나, 포구가 가까이 있는 점 때문에 시장통을 만들어 ‘모또 마찌(元町·원정)’라 했다.



19세기 나주지도에 그려진 영산포 일대.

상가는 동쪽으로 확대되어 영산천 뒷가를 향해 ‘히가시마찌(東町·동정)’가 조성되니 초기 영포긴자(銀座·은자)거리다. 1910년 계획적인 가로망 공사로 낙마찌(仲町·중정), 니시마찌(西町·서정)로 이어진다.

1915년 호남선철도와 임취목교(賃取木橋)가 준공됐다.

1920년대 꾹대기에 등이 부착되어 평소에 ‘등대’로 여겨졌다. 이 시설물을 중심으로 주 선창터가 되어 인파와 말수레까지 불벼 수륙교를 절지와 가항종점(可航終點)의 상징, 곧 영산포 랜드마크가 됐다.

영산포 상가도 거의 일본인 가게로 변하여 일본 위정자들이 언급한 ‘한국의 일본화’ 즉 왜색도시(倭色都市)였다.

21세기 새 영산포의 정체성을 찾는 탐구는 지금부터다.

/김경수(사향도문화진흥원장)

(44) 정 응 前 31사단장 <하>



약력

- ▲ 1928년 순천 저전동 출생
- ▲ 순천중(5년제), 육군호국군사관학교 졸업
- ▲ 보병 31사단장
- ▲ 민주화추진협의회 부의장
- ▲ 평민당 안보·국방위원장
- ▲ 13대 국회의원

92년 말 대선에서는 신정당의 박찬종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주대, 선거전에 나섰으나 패배한 이후 정계에서 은퇴했다. 은퇴 후 정 전 의원은 종교 활동에 치중했다.

“저는 기독교 집안 출신이지요. 아내가 한국기독교총연합 여성위원회이고 아들들도 앤수집사입니다. 저는 중앙성결교회 장로로서 봉사활동만 했어요”

정 전 의원이 또 전직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회장회 활동을 하며 지인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광주시민에게 한마디 했다.

“우선 5·18 희생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광주시민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월 묘역이 국립묘지가 되고 상무대가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광주 발전을 희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광주·전남민이 합심해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lafuma winter
스노우보드 페스티벌**

개끗하게 빛나는 설원에서
당신을 끌는 시선은 더 알아집니다.
지금 라푸마에서 더 스카이라우프
스노우보드를 준비해 보세요!

스타일을 완성할 라푸마 고급을 드립니다!
스노우보드 세트 구매시 10만원 상당 구글 출장
포근하고 캇스러운 비니모자를 드립니다!
차세 28만원 이상 구매시

라푸마는 대한민국 국민경기의 공식 스폰서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산을 더 아름답게 사려나가겠습니다!

라푸마 전국 특약점을 모집합니다. 문의 023441-8846 지세판 내용은 라푸마 홈페이지 www.lafumakorea.co.kr 참조하세요.

lafuma France